

전북도-민주당, 국가예산 확보·지역현안 해결 ‘한뜻’ “도인사잇단 실패 시스템 혁신해야”

도,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16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국회 심의 단계 협력 체계 강화
새만금공항 정상 추진 요청
공공의대·전북특별법 등 협력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자치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국회 단계로 넘어간 만큼, 신규사업 확보와 핵심 현안 반영을 통해 지역 발전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1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와 박지원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박승원 참총은지방정부위원장, 문대림 대변인, 한민수 비서실장 등 민주당 핵심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지역에서는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윤, 신영대,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전북자치도에서는 김관영 지사와 노홍석 행정부지사 등이, 도의회에서는 문승우 의장이 참석했다.

2026년 국가예산 정부안에는 전북 관련 사업 총 9조 4,585억원이 반영됐

는데 이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25년 국비 4,190억원) 등 대규모 계속사업이 완료되는 여건에서 전년 정부안 대비 3,923억 원 증액된 규모이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2,445억원 규모로 전년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협의회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필요한 핵심 건의 사업들이 논의됐다.

전북도는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연계된 미래성장동력사업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335억 원) ▲AI 융합 K-영화·영상산업 거점 조성(480억 원) ▲호남권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480억 원) ▲새만금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신설(7,000억원)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4,500억 원)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480억 원) ▲청년 all-in-one 타운 조성(993억 원) ▲기초연구 인프라 연구시설 구축(2,500억 원) ▲AI 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400억 원)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36억 원) 등이다.

정부안에 과소·미반영된 미래산업 전환, 농생명수도, 문화관광거점 조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 4개 분야 10대 핵심 건의사업의 추가 편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북자치도-더불어민주당 16일 도청서 열린 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정청래 당대표와 김관영지사, 박지원 최고위원,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윤·신영대·윤준병·박희승·안호영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전북도>

또 국가예산 확보와 더불어 시급한 도정 현안 해결 방안도 중앙당에 제안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회 올림픽 유치지원 특위 및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유치위원회 구성,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의 거점으로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했다. 또 새만금 글로벌 첨단 전략산업기지 구축 및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지정과 도

민의 숙원사업인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달성을 위한 남원시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도 협조를 요청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산업·민생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특례 실행령 제고를 위한 전북 특별법 개정,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

한 법원설치법 개정 등 현안 법률 과제들을 제시한 것.

이 자리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이 뜻을 모아 힘을 합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사업들과 주요 현안들이 국회 심의에서 확실히 반영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민주당 “새만금신공항 항소 총력 대응” 피력

법원판결 “절차적 정당성 결여” 지적
“조류 충돌 우려 과장·보완책 무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법원이 결정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와 관련, 총력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윤(전주), 박희승(남원) 수임실순청, 안호영(완주)안무주 의원 등이 참석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국책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

한채 일방적 주장과 제한된 분석 결과에 기댄 불합리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조류 충돌 가능성을 과도하게 우려한 나머지 전략환경영향평가상의 실증과 객관적 분석 결과, 보완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류 충돌 위험성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고, 이는 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새만금신공항 사업 자체를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는 오

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한은 물론 국가 미래 전략을 사법부의 잣대로만 재단했다”며 “한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새만금에 항공 인프라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 등은 “국가균형발전, 한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위해 앞으로 진행할 항소심과 집행정지 심리 등을 철저히 대비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정청래 “호남인들에게 가시적 성과 보여줄 때”

“국가가 호남 위해 무엇을 했는가 호남의 역사적 계기 만들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호남을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을 많이 해왔다. 이제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성과로 이제는 호남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고 호남 발전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사에서 열린 호남 발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실제로 성과를 내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호남특위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줄기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었다는 말처럼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호남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국가가 답할 때”라고 국가가 호남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호남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국립의대 문제라던가 이재명 정부 추진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육성 등 호남에 맞는 발전의 요소들을 채워 넣는 것이 특위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특위에서 나오는 안들이 100% 다 만족하게 제안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호남발전특위를 통해서 호남이 역사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도 같이 손잡고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지원을 약속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추석맞이
부안로컬푸드직매장
특판행사

9월 25일(목) ~ 10월 5일(일) 11일간

秋夕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숙원 공공의대·고령친화산단, 국정과제 ‘탄력’

도, 공공의대 설립 선제적 추진
연내 법안 통과 목표 주력
남원 부지 확보 55% 진행
지역 필수의료·산업 지원 강화

전북도 숙원사업인 공공의대 설립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사업에 탄력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16일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조에 맞춰 양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를 제시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공공의대 설립은 국정과제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은 국정과제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에 반영됐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 등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두 현안을 국정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도 정부를 비롯한 해당 시군 등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을 피력했다.

전국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의료집중 및 필수의료 근무 기피 등 심각한 의료불균형 해결과 누구든지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의대는 이러한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추진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2018년 당정청 합의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남원 설립이 결정된 이후, 설립 부지를 확정하고 2019년부터 지속해서 부지를 매입(현재 55.1% 확보)하는 등 의대정원 확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설립할 준비를 갖춘 상태다.

새 정부 들어 공공의대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대 추진을 전북자치도 7대 공약에 포함해 발표했고 국정기획위 출범후, 전북자치도는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제시하면서 국회와 중앙정부·국정기획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설득 노력에 힘입어 공공의대 설립이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북자치도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공의대 설립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국정과제 반영을 계기로 공공의대 설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연말까지는 공공의대 설립의 첫 관문인 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간 지역 정치권·국회·중앙정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민주당 당론 채택을 이끌어냈고, 박희승 의원이 해당법안을 대표발의, 보건복지위 제2 법안소위에 계류 중

이다.

향후 진행될 국회 상임위·법사위 등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고, 법안처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관련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 설득하는 등 법안이 연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준비 중인 공공의대 설립 관련 연구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 공공의대 남원 설립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피력하고 제시하는 한편, 전북도에서도 전북연구원 등과 협업으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상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설립 방안을 마련한다.

또 남원시와 협력해 2026년까지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잔여부지 추가 매입을 완료, 향후 건립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환경단체, 道에 새만금공항 항소 포기 촉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경제 효과 없어, 사기극 멈춰야”

새만금 신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에게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6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와 전북도는 조류 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새만금신공항 항소를 포기하라”며 “새만금 신공항은 경제를 발전시키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관영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며 “새만금신공항은 조류 충돌위험이 무안공항보

다 650배나 높은 점이 판결의 핵심이 됐는데 ‘보완 조치하면 될 일’이라며 망언을 퍼붓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근거 없는 허구로 시민들을 기만하며 새만금신공항 항소를 압박하는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 정치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전제한 뒤 “사기극을 멈추고 생태가 공존할 수 있는 생명과 존엄의 정치를 이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300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도내 군부대와 장병 복지·지역 발전 뜻모아

도-군 협력 강화 회의 개최
장병 전북투어·도민증 연계 추진
지역과 군 장병 상생 체계 마련

전북도는 16일 도청 충무사에서 도내 주요 군부대와 함께 ‘도-군 상호 협력 증진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와 군 간의 유기적인 소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육군 제35보병사단,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등 도내 군부대 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해 ▲모범장병 전북투어 협조 사항, ▲전북사랑도민증 제도 홍보 등, ▲군부대 맞춤형 도민증 이벤트 운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장병들이 전북투어를 통해 도내 주요

관광지와 문화를 체험하고, 전북사랑도민증에 가입하여 지역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도는 9월 중 군 장병을 대상으로 맞춤형 도민증 이벤트를 운영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내 14개 시·군 247개 합인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증 제도가 장병과 지역을 잇는 실질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광모 전북특별자치도 안경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도와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장병 복지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가겠다”며,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



전북도는 16일 도내 주요 군부대와 함께 ‘도-군 상호 협력 증진 회의’를 열고, 지역사회와 군 간의 유기적인 소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장병들이 전북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한국쌀전업농 전북연합 한마음대회 개최

쌀 소비 촉진·쌀산업 미래 도모
경쟁력 제고·지속가능 농업 다짐

전북도는 16일 군산시 월명실내체육관 일원에서 한국쌀전업농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이호석)와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마음대회를 통해 쌀 산업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쌀전업농 회원들은 상호 간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쌀 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전북지역 시군 대

표 브랜드 쌀과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전시하는 우리 쌀 홍보관이 운영됐고, 농기계와 농자재 전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함께 마련되어 농업인과 소비자가 어우러지는 현상이 조성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업산업국장은 “기후 변화, 쌀 소비 감소, 국제 곡물시장 불안 등 여러 도전 속에서도 쌀전업농 회원들의 헌신이 대한민국 쌀 산업을 지켜내고 있다”며 “전북도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바이오첨단소재센터 원안가결

행정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230억 투입 사업 대상지 방문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6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을 위해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심의에 앞서 지난 8일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방문,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바이오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공간, 커뮤

니티 공간, 시제품 제작·테스트 오픈랩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총 230억 원이 투입된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공유계획안이 상정 전, 집행부의 공유재산 심의 결과가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최형열 위원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청소년 Dream Ai 리터러시’ 교육 성료

도-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주최
콘텐츠 제작·리터러시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주최한 청소년 Dream Ai 리터러시 교육 과정이 지난 7일, 14일 2회에 걸쳐 마무리됐다.

이번 과정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콘텐츠에 친숙한 미래세대가 올바른 기술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은 총 2회차로 운영된 가운데 참가 청소년들은 AI 원리 이해, 창의적 문제 해결, AI 기반 콘텐츠 제작 체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쌓았다. 특히 교육생들은 텍스트 기반 AI 활용, 이미지 생성 및 간단한

콘텐츠 제작을 직접 수행하며 AI 기술의 긍정적 활용 방법을 몸소 경험했다.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결과물은 온라인 자료집과 책자로 제작되어 공유될 예정이며, 일부는 추후 진흥원 성과 공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AI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향후 지역 사회 전반으로 이러한 교육 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를 모은다.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김성규 원장은 “이번 Dream Ai 리터러시 과정을 시작으로 미래세대가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갖추고, 지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촌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해 시장·군수 등이 기본계획만을 토대로 농촌특화지

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는 간소화하고,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을 명시해 매년 3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계획만 수립하면 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율=김영목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1.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2. 횡단보도에서는 멈춤

3.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4.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여기부터 속도를 줄이시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체, 국내근로자 채용 어려워

“주 4.5일제 도입 시 인건비 부담·비용 상승 업종별 고려 기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5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2024년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애로·개선 과제 및 정책 도입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 7월 2주간 실시됐다.

고용 이유 조사 결과, 전체 93.8%가

국내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고용 계획 및 경기전망 응답 기업의 98.2%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 또는 확대'(확대 38.2% + 현 상태 유지 60%)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확대 시 평균 채용 계획 인원은 6.5명으로 응답했다.

특히 향후 3년간 고용허가제 수요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 증가 55.5%(크게 증가 7% + 다소 증가 48.5%), 현 수준 유지 41.7%로 나타났고 감소는 2.8%(다소 감소 2.6% + 크게 감소 0.2%)에 불과했다.

응답 업체 중 60.8%는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기타 의견으로는 △성실성 및 인성(8.7%)을 꼽았다.

△(주 4.5일제 영향) 전체 42.1%는 '납기 준수 어려움', 24.1%는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일부 오프쇼어링 고려)'으로 답하며 제도 시행 시, 사업체 운영에 애로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며 “고용 계

획이 유지·확대되는 만큼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주 4.5일제 도입 시, 근로시간 축소는 중소기업에게 생산량과 매출 하락으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노동투입량 부족으로 납기 준수에 대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며 “부족한 인력을 연장근로로 보전할 경우 추가 인건비 발생으로 경영여건은 악화될 것”이라며 “제도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민·관·공 상생 ‘디지털 지적의 날’ 행사

지적재조사 발전 유공자 24명에 장관 표창 등 포상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국토교통부는 9월 16일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렸으며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 어명소 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어명소 사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AI·드론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적재조사의 혁신 방향과 지적재조사 제4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초청 강연(김일 전주대 교수)이 마련됐다.

또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 이후 민간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일리리를 창출한 성과를 토대로 민·관·공 소통과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지적재조사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20점)과 LX사장상(4점)도 수여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와 광주광역시 서구 박유진(지방시설서기)이 장관 표창을, LX광주전남지역본부 백종현과 LX경남지역본부 김현진 등이 LX사장 표창을 받았다.

부대행사로는 사업지구 내 명소를 담은 현장 사진전과 즉석사진 포토존이 마련되었으며 재능기부 공연영상 등이 상영됐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발맞춰 지적재조사도 AI·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해 공간정보와 융·복합하여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북전주농협-농협전주시지부, 독거 농가에 생필품 지원

농업인행복콜센터 돌봄대상자에 복지서비스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농협전주시지부(지부장 하양진)는 농업인행복콜센터 돌봄대상자 중 고령 및 독거 농가에 생필품을 지원했다.

‘NH농촌현장봉사단’은 농업인행복콜센터에 등록된 돌봄대상자 중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생활밀착형 지원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협 사회공헌활동이다.

‘NH농촌현장봉사단’은 북전주농협 여성단체·임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복지 사각지대의 돌봄대

상자를 초대해 안부를 묻는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농협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돌봄어르신 등 취약계층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70세 이상의 고령·취약·홀몸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인행복콜센터’의 상담을 통해 ‘정서적 위로 제공, 생활불편 해소, 긴급출동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 등록은 인근 농·축협 직원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북전주농협-농협전주시지부는 농업인행복콜센터 돌봄대상자 중 고령 및 독거 농가에 생필품을 지원했다.

중기부-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기업 모집

10월 10일까지 신청 자율규제 평가 제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 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학균, 이하 협회)는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했다.

참여기업 신청은 오는 10월 10일까지다.

그간 벤처투자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정부 주도로 운영됐지만 투자 생태계 성장

과 벤처캐피탈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민간 중심의 예방적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협회는 자체 윤리준칙 및 내부통제기준 규정을 제정하는 등 벤처캐피탈이 지켜야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확립해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벤처투자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중기부는 협회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금년부터 자율규제 평가제도를 신설했다.

평가는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

윤리준칙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처리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을 협회가 점검해 총 6개 등급(S, A+, A~D)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벤처캐피탈에 대해 2026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우대(가점 부여)하고, 최우수 2개사에는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자율규제 평가는 벤처캐피탈 업계가 스스로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투자문화가 정착되

고 우수 벤처캐피탈이 시장의 모범으로 자리 잡도록 민간의 자율적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김학균 회장은 “이번 자율규제 평가는 업계의 자발적인 책임의식에 따라 마련된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합’

농협사료 군산바이오(장장 정민석)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연장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3년간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됐다고 17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로 지난 11일 진행됐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연장심사는 최초 인증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공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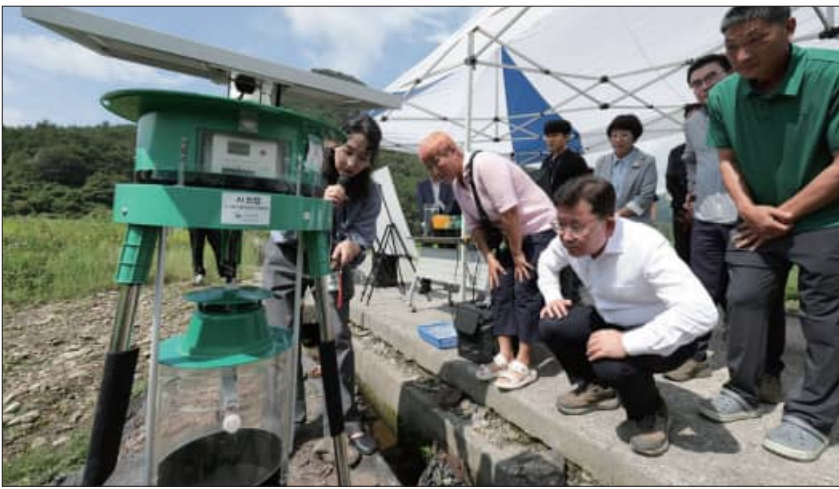
심사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

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가 점검 핵심이다.

군산바이오는 지난 3년여간 실시해 온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등 평가 항목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해 ‘적합’ 판정을 인증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석 장장은 “근로자의 생명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안전하고 활기찬 군산바이로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AI트랩 사업 현장 방문

해충 발생 신속 대응 기반 확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6일 전남 보성군 ‘무인 예찰 포획 장치’(AI트랩, 이하 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품 병해충 관찰 재배지에 설치된 장치의 운영 상황과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인과 시군 담당자, 지방 농촌진흥기관 관계자들과 기술 적용 효과와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장치는 유인 물질(페로몬)로 해충을 유인하고, 촬영 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 분석해 포획한 해충 마릿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예찰 장치다.

실제 현장 검증 결과, 장치의 영상 수

신 및 포획량 판별 정확도가 9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수동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노동시간을 절감하고 예찰의 객관성, 신속성,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청장은 “장치는 기후변화로 돌발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충 발생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라며, “각 지역 관찰 재배제에서 장치를 적극 활용해 해충 데이터를 자동으로 축적·표준화하면, 장단기 예찰과 분석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동시다발적 해충 조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중기중앙회 “산재공화국 오명...예방 집중해야”

필요 이상 엄벌주의적 접근 부작용 초래

중소기업계가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입장문을 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시 처벌,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 일부 대책 범죄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

혔다.

아울러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 초래”에 대해 언급했다.

또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해 노사와 함께하는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대책에 포함된 사업주 책임 강조만으로는 근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지지

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중기중앙회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산재감축을 위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수칙 준수 등 근로자 책임 제도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기업의 안전투자 여력과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각종 제재는 최소한에 그치고 산재 취약 사업장 예방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노동안

전 종합대책 실행에 있어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길 바라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일 높였다.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 반박 기업에 대하여는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되며, 공공임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신협중앙회, ESG 관점 디지털 전략 논의

디지털 선도조합 교육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2025년 디지털 선도조합 담당자 교육’을 제주 애플읍 신협제주연수원에서 개최했다.

교육은 디지털 서비스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ESG 관점 디지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삼정KPMG 박설희 부장이 “현장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금융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신협 디지털 전략과 실천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

를 제시했다.

이어 신협중앙회 디지털부서는 대표 디지털 플랫폼인 다이프온(OV) 서비스 개선 방향과 조합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조합 경영성과 및 마케팅에 미치는 효과를 공유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그룹 활동을 통해 ESG 디지털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신협 디지털·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이자 내부 고객인 선도조합 임직원의 아이디어와 요구사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ESG 미래 역량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학생 ‘학폭 피해 경험’ 전년보다 증가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전국 평균 상회’

전북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 공동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진행한 ‘2025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초 4~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

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됐으며, 전북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72.7%인 10만 1,776명이 참여했다.

조사 항목은 피해·가해·목격 경험 문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년대비 0.5%p 증가한 3.1%(3,183명)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6.3%로 가장 높았다.

이러 중학교 3.0%, 고등학교 0.9% 등의 순이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초등학교 0.9%p, 중학교 0.7%p, 고등학교 0.3%p 증가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

으로 학교폭력대체심의위원회 심의건수를 확인한 결과 동기간대비 2024년 622건에서 2025년 674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된 사안은 동기간대비 2024년 238건에서 2025년 3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 봉사 등 경미한 조치가 2023년 1,461건에서 2024년 1,924건으로 증가, 경미한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학교폭력 아님’ 및 경미한 조치 사안의 증가로 단위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생활교육 권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올 9월부터 초1~3학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조정 생활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학교 단위의 관계개선 조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응답률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중대 사안에는 엄정 대응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관계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농업계고 학생들, 영농학생축제 출전

16~18일 개최 88명 참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부터 18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리는 ‘제54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5FFK충북대회)’에 도내 10개교에서 88명의 학생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를 넘는 힘, 생명산업을 지키는 농업’이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전국 농생명산업계열 고등학생 967명이 참여해 농업과 농업교육의 발전적인 모델을 배우고, 미래 농업인으로서의 기량을 뽐낸다.

전북에서는 전주생명과학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남원용성고, 원

광보건고, 전북베이커리고, 전북인공지능고, 정읍제일고, 한국경마축산고, 한국치즈과학고, 한국한방고 등 10개교 88명이 5개 분야 20개 종목에 참가한다.

출전종목은 △전공경진 △실무능력경진 △과제이수 등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영농학생축제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북 학생들이 전국 무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나아가 지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늘봄학교 학생 안전 대폭 확대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제 등 다층적안전망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유정기)은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와 도내 늘봄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 및 학교 주변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유괴 시도 및 유괴 의심 사건 발생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불안이 크게 높아지면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 뿐 아니라 학교밖 늘봄 기관, 거점늘봄센

터 주변의 범죄 예방까지 지원하는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제’ 강화가 핵심이다.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제는 학교, 학교밖 늘봄 기관에서 ‘순찰 신문고’ 누리집으로 위험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경찰이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전북경찰청은 순찰 활

동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학교 안에 머무르던 안전 지원을 학생들의 생활권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학부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알 하마르 주한 카타르 대사 초청 특강

2백여 명 참석 성황 양국 협력 가능성 모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5일 칼리드 알 하마르(Khalid Al-Hamar) 주한 카타르 대사를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에는 전북대 학생과 교직원, 외국인 유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강연에서 알 하마르 대사는 ‘카타르-한국 관계: 비전과 교육’이라는 주제를 통해 카타르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과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과 카타르가 국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강 이후 알 하마르 대사는 전북대가 최근 구축한 첨단 교육혁신 공간인 AI스페이스(AI Space)를 둘러봤다. 대



전북대학교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5일 칼리드 알 하마르 주한 카타르 대사를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사는 직접 시설을 살펴보고 대학의 혁신적 시도를 높이 평가했다.

조화립 전북대 국제처장은 “이번 초청 강연을 통해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각을 넓

히고, 교육과 문화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며 “강연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소장 전제성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의 2025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동남아연구소는 2031년 8월까지 6년간 약 18억 6,950여만 원(간접비 포함)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동남아연구소는 동남아언어캠프를 비롯해 그간 운영해 온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신규 과제명은 ‘전환기 동남아시아 발전 모델에 관한 비판적 지역연구’다. 불안정성이 커진 국제질서와 기후변화, 다중 위기 속에서 동남아시아가 어떤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연구소는 기존 과제의 핵심 개념이던 ‘사람 중심성’에 ‘자연’을 추가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군산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4.09대 1

국립군산대학교는 16일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총 모집인원 1,839명에서 7,528명이 지원해 4.09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시 경쟁률 3.37대 1에 대비해 경쟁률이 상승했다.

전형별 정원내 경쟁률은 학생부교과전형 4.13대 1, 학생부종합전형 4.94대 1, 실기·실적전형 2.90대 1로 집계됐다.

세부전형별 경쟁률은 학생부교과전형(일반전형) ICC대학부 간호학부 9.00대

1, 식품영양학과 7.87대 1, 일어일문학과 7.65대 1, 학생부교과전형(지역인재 1) 기관공학과 9.50대 1, 해양경찰학부 9.00대 1, 간호학부 8.38대 1등이다.

실기고사(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는 오는 10월 30일 실시하며, 최초 합격자는 11월 20일 이전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총원 합격자는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30일까지 ‘완주 취업반’ 참가자 모집

인력난 해소·청년 일자리 마련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대학일자리본부가 오는 30일까지 ‘완주 취업반’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완주 취업반’은 완주군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완주군의회·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가 공동으로 기획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참여 기업으로는 △화학 분야의 ㈜정석 케미칼 △수소 및 이차전지 분야의 비나텍(주) 등 완주 산업단지 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예정돼 있다.

심재광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수칙

불필요한 조명기구 소등하기

세탁기 사용 회수 줄이기

전기밥솥 보온시간 줄이기

T.V 시청 시간 줄이기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냉장고 에너지 효율 높이기

절수설비 기기 설치하기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난방온도 2도 낮추고 냉방온도 2도 높이기

창틀과 문틈 바람막이 설치하기

군산시립도서관, 27일 ‘책책북북 페스티벌’ 개최

군산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 오는 27일 시립도서관 옆 수송근린공원과 맑곶광장 일원에서 ‘제3회 책책북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책과 함께하는 도심 속 푸른 쉼터, 군산’을 주제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과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전에는 개회식과 어린이 독서골든벨이 페스티벌의 막을 연다. 사전접수를 진행했던 어린이 독서골든벨은 접수를 시작한 지 하루도 못 돼 80명의 참여 인원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후에는 야외도서관·밀집모자 및 필통 만들기 등 어린이 독서문화 체험부스, 원화 전시·그림책 북큐레이션, 독서진단, 책북 사진관, 페이스페인팅 등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군산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책책북북 페스티벌은 책을 매개로 시민이 자연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우리지역 대표 독서문화 축제”라며, “많은 시민과 가족이 참여해 책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행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공사 현장 20곳 대상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군산시가 공사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은 19일까지 진행되며, 3억 원 이상의 규모로 진행 중인 토공과 구조물 공정 위주 현장 20건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시가 직접 주요 건설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독려하고, 공사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는 상담을 위해 감사담당관 공무원들과 외부인 시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치는 한편, 기존의 감사 방식을 넘어 소통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전례를 답습하는 불합리한 업무처리와 공사 감독의 관행적인 갑질 행위를 파악하고,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건설 현장 방문을 통해 부패 발생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통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점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계약 문화 정착과 시민 신뢰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이수…안전행정 강화

이학수 정읍시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선제적으로 이수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행정 강화를 다짐했다.

지난 12일 정읍시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이 시장은 시청 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총괄하는 핵심 직위로서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교육 과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이 시장은 공무원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 지식을 습득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책무와 시 소속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NS푸드페스타’ 익산서 막 올려

26일 하림 퍼스트키친서 개최…창업·유통·소비 연결 산업형 축제 도약

올 가을, 대한민국 식품 수도 익산에서 국내 최대 규모 미식문화 축제가 열린다.

익산시는 ‘NS푸드페스타 2025 in 익산’이 오는 26~27일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하림 퍼스트키친에서 개최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NS 푸드페스타’는 그동안 익산이 쌓아온 식품산업 기반을 시민과 관광객, 나아가 국내외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는 장이다. ‘행사 첫날인 26일에는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일반 요리경연 본선이 펼쳐진다. ‘미식간편식 부문’에는 일반 참가자들이, ‘대학생 부문’에는 조리전공 대학생들이 출전에 실력을 겨룬다.

이어지는 급식 전문가 이미영 셰프의 쿠킹쇼에서는 익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하고 손쉬운 요리 비법이 소개된다. 둘째 날에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요리경연, 글로벌 라면 경연 등 가족·외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색다른 요리 프로그램이 열린다.

‘아빠와 자녀 부문’은 14세 미만 자녀와 아버지로 구성된 팀이, ‘글로벌 라면 부문’은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팀을 이뤄 참가한다.

이번 푸드페스타는 식품기업과 소비자,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형 축제로서의 의미도 크다.

‘하림그룹 브랜드존’과 ‘미식 마켓’에서는 하림의 가정간편식(HMR) 제품과 미래형 식품기술을 선보이며, ‘익산 흥보존’에서는 지역 전통 대물림 맛집의 음식과 특산품을 소개해 익산의 맛 정체를 브랜딩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한편 올해 축제에는 약 1만 9,000여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요리 행사가 아닌, 익산을 K-푸드 산업의 구심점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맛과 문화,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익산만의 축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점검

파크골프장·생태습지 등 시민 휴식공간 조성

이학수 정읍시장이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현장 중심 행정을 펼쳤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동진강 일원을 둘러보며 파크골프장, 산책로, 생태습지, 체육시설 등 다양한 조성 계획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시했다.

먼저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예정지에서는 매표소와 주차장을 이용객 동선에 맞게 배치하고 역사품 산책로와 시민 휴식공간을 함께 조성해 복합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만석보 뒤편에서는 생태습지와 역사품 산책로를 검토하고 주차장은 추가 매입 없이 기존 부지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기반 조성이 끝난 이평습지는 면적을 세밀히 검토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즉



시 추진하고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다. 낙양보 제방의 경우 하천정비 공사로 농사가 금지될 예정인 만큼 사전 예고를 철저히 해 민원 발생을 막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다리 밑 불법 평상 등은 국가지침에 따라 철거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히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이학수 시장은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는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적극행정을 통해 동진강을 정읍의 대표 휴식·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 앞장

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 분뇨처리장비 등 지원

익산시가 축산악취 저감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포함 총 사업비 21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신청한 전국 51개 시군구 중

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20개 시·군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3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이중 익산은 가장 많은 지원액을 확보하며 축산악취 개선선도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국비 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지 농가에는 분뇨가 쌓이지 않도록 순환시켜 냄새를 크게 줄이는 ‘액비순환시스템’이, 소 농가에는 분뇨를 빠르게 모아 고르게 섞여줘 냄새가 나지 않게 하고, 밖으로 내보내기도 편

리한 ‘분뇨처리장비’ 등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그에 이어 남아 있는 개별 농가의 악취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도시 전역에서 냄새 걱정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마무리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창문 열기를 망설였던 주민들도 이제 집 앞에서 냄새가 줄어들었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대책을 만들고 농가 역시 친환경적인 분뇨 관리로 축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청년농 스마트 드론 경진대회 성료

20여 개 팀 기술 뽐내

전북 청년농어업인들이 드론 활용 역량을 겨루는 경진대회가 정읍에서 열리며 미래 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16일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전북 청년농 스마트 드론 경진대회’에는 전북 각지에서 모인 20여 개 팀이 참가해 기술을 뽐냈다.

참가자들은 드론 방제와 시비, 예찰 등 영농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심사 결과, 대상인 도지사상은 김재

시 강민성·스기하라 유가 팀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인 정읍시장상은 정읍시 최선호 팀, 익산시 김기표·김미소 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 우수상인 전북지부 회장상에 다섯 팀이 이름을 올렸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기술 경연을 넘어 청년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에 새로움을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자리”라며 “스마트 농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이 영농 현장에 적극 활용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하수관로 따라 지반 정밀탐사 나서

땅꺼짐 안전사고 예방

익산시가 도심 하수관로를 따라 정밀 조사를 진행해 땅꺼짐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시는 최근 잦은 지반침하로 도로 합몰 등 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직경 500mm 하수관로가 매설된 지역 약 35km 구간을 대상으로 지반탐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표투과레이더는 땅속에 전자파를 쏘아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내부 상태를 영상처럼 보여주는 기술이다. 엑스레이로 몸속을 들여다보듯 땅속을 들여다보는 장치인 셈이다. 땅속에 흙이 잘 다져져 있는지, 혹은 빈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수관로 주변은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흙이 쪼개 나가거나 지반이 약해져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기 쉽다. 이

상태를 방지하면 땅이 꺼지면서 포트홀·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탐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1차적으로 차량형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역을 모두 살펴본 뒤,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핸드형 GPR 장비를 활용해 2차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천공을 통한 내시경 촬영으로 땅속 공동(빈 공간)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된 구간은 즉시 복구할 방침이다.

정현율 시장은 “땅 꺼짐은 예고 없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생활개선연합회 방문 격려

강임준 군산시장이 16일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배지영)가 영농폐자재를 수거하는 현장을 방문해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2006년부터 관내 마을 및 들녘에 방치·보관된 영농폐자재를 집중적으로 수거해왔다. 이후 수거 활동은 농촌환경 정화와 자원순환을 이끄는 대표적인 농촌 환경지킴이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매년 상·하반기 영농폐자재 집중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17일까지 수거를 진행한다.

특히 수거된 폐자재는 전량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로 이송돼 재활용 처리해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촌환경을 지키는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회원들에게 “군산시 환경을 위해 20년 동안 애써오신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탄소중립 실현과 깨끗하고 건강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선 생활개선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군산시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그레이트 익산 청년창업 페스타’ 26~27일 열려

NS푸드페스타 연계 축제의 장

익산시가 청년 창업 활성화와 창업 문화 확산에 팔을 걷었다.

익산시는 ‘그레이트 익산(Great Iksan) 청년창업 페스타 2025’를 오는 26~27일 하림산업 퍼스트키친 야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NS푸드페스타와 연계해 매년 개최되던 취업박람회를 대신해 지역 청년창업 기업과 예비 창업자, 시민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창업기업은 NS홈쇼핑의 MD컨설팅을 통해 판로개척 기회를 넓히고, 예비

창업자는 실질적인 정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이번 청년창업 페스타는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에게는 도전과 성장을 위한 무대가 되고, 시민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청년이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청년창업 진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시,재해위험정비사업 선정 489억 확보

백평지구·생암지구·월석지구 선정 상습침수·급경사지 근본적 해소 시2179억 규모 재해예방사업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재해위험정비 신규사업’에 최종 3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489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총사업비 489억원(국비 245억, 도비 98억, 시비 146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백평지구 풍수해생환권 종합정비사업 366억원(‘26~29) △생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5억원(‘26~29) △산동 월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원(‘26) 등이

선정되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선정으로,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송동면, 대강면, 산동면의 상습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남원시는 △사석지구 풍수해생환권 종합정비사업(총사업비 397억 원, ‘22~27) △대곡지구 풍수해생환권 종합정비사업(총사업비 406억 원, ‘23~28) △등구·평선지구 풍수해생환권 종합정비사업(총사업비 313억 원, ‘25~29) △노암4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150

억 원, ‘23~28) △주촌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396억 원, ‘23~28) △노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총사업비 28억 원, ‘25~26)과 같은 다양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을 합산하면, 남원시가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은 총 2,179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된다. 이는 남원시 재해예방사업 역사상 최대 규모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존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추석맞이 자활생산물 순회장터 ‘성황’

전북 5개 센터·17개단체 참여 40여종 상품 전시·판매 활발

완주군이 16일 완주군청 1층 로비에서 전북광역자활센터 주관으로 ‘2025년 자활생산물 시·군 순회장터’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완주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해 전북 관내 5개 센터, 총 17개 자활사업단이 참여해 자활생산품을 전시·홍보하고 판매했다.

행사장에는 제과·제빵, 커피·음료, 농산물 가공품, 애완동물 간식 등 직접 생산한 40여 종의 다양한 제품이 선보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완주지역자활센터의 인기 상품인 ‘수제 초코파이’, 자활기업 완주로컬푸드에서 생산한 참기름과 들기름, 간식용 및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한과세트, 커피 드립팩 등이 많은 관심을 받으며 판매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자활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참여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군수는 “이번 자활생산물 순회장터는 자활근로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성과를 군민들께 소개하고, 자활사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옷칠 목공예 워크숍 개최 전국 목공예인 100명 사전 모집

남원시와 남원목공예협회가 “옷칠의 빛, 목공의 온도, 마음의 침표”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옷칠 목공예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2023년부터 개최된 남원의 목공예 워크숍은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목공예 기술이자 남원을 상징하는 기술인 ‘같이(우드터닝)공예’를 중심으로 진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옷칠 공예와 목공 기술까지 더해 더욱 풍성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앞으로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공예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남원을 상징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행사는 오는 10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남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옷칠 공예, 같이(우드터닝)공예, 목공예(카빙) 분야까지 3개의 분야로 구성하여 진행된다.

참여 인원은 옷칠 공예 30명, 같이 40명, 목공 30명으로 총 100명의 인원을 온라인으로만 사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 모집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성년’ 맞은 순창장류축제, 막바지 준비 총력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최종보고회 교통·안전 대책 최종 점검 완료

순창군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각 실과 부서장, 읍·면장들이 참석해 축제 준비 현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축제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만큼, 사실상 상 축제 준비의 마지막 조율 단계이자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총력 점검의 장이었다.

올해 축제는 2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한국의 전통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공, 삶고 쪼고 매주 만들기 △함급 매주를 찾아라 △순창보물 장주왕을 찾아라 △



순창군은 지난 15일 제20회 순창장류축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장류제품 할인이벤트 △장맛나온 캐치! 티니핑 △발효청춘 광개명대 회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과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또한, 군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을 확대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불꽃축제를 비롯한 주요 프로그램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했으며,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

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0회 순창장류축제가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 달라”면서, “성년을 맞은 장류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효와 장맛이 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남원교육지원청 설명회서 드론제전 홍보

교원·장 대상 제전 참여 독려 기술·진로 체험 박람회 소개

남원시는 지난 15일, 남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설명회에서 오는 10월 16일부터 나흘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열린 ‘2025 남원국제 드론제전 with 로봇’의 참여를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홍보는 남원교육지원청에서 남원 관내 유치·중·고·특수학교 교(원)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드론제전의 주요 내용과 학생 참여 방안 등을 간략히 소개했다. 이번 남원국제드론제전은 남원교육지원청의 많은 참여 및 협조가 이뤄졌다.

특히 진로진학체험한마당, 과학·수학 체험교실의 참여로 작년보다 체험형 프로그램이 확대돼 200개 부스가 운영되며 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캐릭터 팝업 놀이터가 마련되어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드론·로봇 스포츠 대회, 드론·로봇 전시 및 컨퍼런스, 드론공연 및 체험 페스티벌, 글로컬푸드 페스티벌 등이 소개됐으며, 남원교육지원청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드론과 미래기술 체험 및 경진대회, 진로직업체험 박람회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한우단체와 발효사료 지원 논의

김재천 부의장 간담회 참석 한우 품질 향상·환경 개선 효과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15일 가축문화교육원 평생배움터에서 열린 ‘한우 발효사료 지원 축산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한우협회 및 완주한우협동조합 관계자 등 40여 명이 함께해 한우 한우산업의 현황과 발효사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완주군 한우는 1++A 등급 출현율이 전북 평균보다 낮고, 도체중량과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육질 개선과 사료 관리 최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효사료를 사용할 경우 △도체중

량 약 50kg 증가 △1++등급 근내지 방도 향상 △분변량 감소로 인한 악취 저감 등 품질 향상과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발효사료 지원 사업은 완주한우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8억 원(군비 18억 원, 자담 12억 원, 부지매입 8억 원)이 투입된다. 2,866㎡ 규모에 일 100톤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해 올해 본예산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쳐 2027년 본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천 부의장은 “한우 품질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청소년 봉사동아리 ‘행세곰’ 전국대회 은상

청소년센터 ‘고래’ 소속 동아리 길고양이 돌보기·줍깅 등 활동

완주군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 온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 활동이 전국에서 인정받았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소속 봉사동아리 ‘행세곰(행복한 세상을 꿈꾸며)’이 최근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한 ‘제27회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행세곰 동아리는 완주군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10명이 모여 2023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동네 길고양이 돌보기 △분리배출 캠페인 △‘NO! 일회용품 Day’ 운영 △‘우리 동네 줍깅’(줍다+조깅) △우유팩·폐건전지 수거 후 휴지조 교환하기 등이 있다.

임소은 동아리 대표는 “봉사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했고,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 선정 절차 착수

입지 선정 계획 공고예고 2개월 공모 진행 후 최종 선정

완주군이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친환경 폐기물 매립 시설’ 건립을 위해 나선다.

군은 보은매립장 및 완주군 내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할 폐기물 매립시설의 신규 입지를 찾기 위한 ‘완주군 폐기물처리(매립)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오는 18일 공고할 계획이다.

신설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은 비봉면 보은매립장 내 불법 폐기물 92만 톤과 완주군 내 사업장 폐기물 19만 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약 2개월간의 입지 공모를 진행 후 폐기물매립시설이 들어설 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부지를 결정한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는 매립장 시설설치비용의 2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고, 매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폐기물 매립시설 입지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은 법인, 단체, 마을 대표 등이 11월 17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완주군 자원순환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보은매립장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소방청과 자매결연…지역 활력 새 동력

관광·특산물 판로 확대 협력 강화 6만명 소방가족 잠재 소비층 확보

남원시는 정부의 ‘지방 살리기 상생자매결연’ 사업에 따라 소방청과 손잡고 지역 소비 활성화, 인구 유입, 지역 현안 해결 동력 확보에 나선다.

이번 자매결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공동사업으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시는 2024년부터 전북소방본부와 연계해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소방청 주관으로 1,00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한 제3회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 캠프와 제2회 프로미 119 안전리더 캠프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협업을 이어왔다. 또한 소방청 복지 플랫폼을 활용한 남원 특산물 판로 확보, 전국 소방공무원 가족 힐링 캠프, 남원 시립 김병중 미술관과의 협업 제품 제작 등을 논의하며 상호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연 1회 이상 단체 관광교류 추진 △소방청 임직원 주요 행사의 남원시 우선 개최 △휴가철 남원 방문 장려 인센티브 제공 △기관 기념품·명절 선물에

지역특산물 우선 활용 △비자회 및 직거래장터 정례화 △남원 누리시민 가입 및 고향사랑기부제 유도 등 실질적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첫 단계로 세종시 제2정부청사에서 남원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다.

시는 소방청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6만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이 잠재적 소비층으로 연결되는 실수를 가져온 만큼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화해 할인·캐시백, 남원시 직영 시설 이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시장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통시장에 활기

순창군은 16일 순창시장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가요제는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후원, 전북자치도상인연합회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약 300여 명의 주민과 방문객이 참여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소비 형태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쇼핑문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아울러 지역 방송사와 연계한 시장 탐방, 우수 상품 및 점포 홍보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코미디언 황기순 씨가 사회를 맡아 군민 노래자랑을 유쾌하게 진행했고, 가수 배일호, 문연주, 가희, 고은빛 등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상인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고품질 행사도 열려 관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더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JTV 전주방송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산내면 여강스님, 추석명절 이웃돕기 물품 기부

남원시 산내면에 소재한 삼화선원(주지 여강스님)은 지난 1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제 누룽지 10박스 150개 (현금 150만원 상당)를 산내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여강스님은 해마다 설, 추석 명절 연 2회에 걸쳐 관내 이웃들을 살피는 나눔 기부 행사를 올해로 11년 째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나눔 활동 실천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삼화선원 여강스님은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도들과 함께 기부하게 되었다”라며 “지역 내 이웃을 위해 나눔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지역사회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이성근 명장은 “명절마다 늘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물품을 기부해 주시는 여강스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며 “후원에 주신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는 지난 9월 16일 충북 청남대 일원에서 자원봉사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자원봉사의 의미와 봉사자의 자세를 되새기고,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며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안천면·동향면·상전면·마령면·부귀면·정전면·주전면 등 지역봉사단과 홍산전방봉사단, 마이산 탐사 붓다봉사단 등 총 9개 단체의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이재동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봉사단체들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봉사자들의 땀과 정성이 모여 행복한 진안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청 사격팀,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서 쾌거

금2은1동1 획득

임실군청 사격팀이 전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창원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34회 경찰청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명실상부 전국 정상급 팀임을 입증했다.

특히, 25m 권총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황성은, 이시윤, 백정현 선수로 구성된 임실군청팀은 총점 1,744점으로 당당히 우승을 차지

하며 금빛 성적을 거뒀다.

또한, 공기권총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도 세 선수는 1,709점을 기록해 동메달을 추가하며, 두 종목에서 모두 시상대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개인전에서도 눈부신 활약이 이어졌다. 공기권총 개인전에서는 이시윤 선수가 금메달, 25m 권총 개인전에서는 황성은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며 단체전뿐 아니라 개인 기량에서도 최정상급 기량을 과시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행복드림복지회,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에 1,200만원 후원

합창단 활동 지원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지난 15일 완주군청 4층 전략회의실에서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사)행복드림복지회(대표이사 김선례)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후원금 1,200만 원이 합창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완주장애인합창단 ‘꽃’은 2023년 8월 창단하여 현재 39명의 단원들이 매주 정기연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전북장애인합창대회 1

등, 전국장애인합창대회 화합상 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후원사인 (사)행복드림복지회는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을 기반으로 자동 제어반과 계측제어 장치 등을 제조·운영하며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힘써왔다. 2023년부터는 완주장애인합창단에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며,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단복 등 현물 후원까지 더해 합창단의 성장을 함께 뒷받침 해왔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시, 한솔축산등 추석맞이 기탁 잇따라

정읍시에서 추석을 앞두고 기업·교회·단체의 따뜻한 기탁이 이어지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지난 15일 한솔축산, 정읍성결교회, 정읍라이온스클럽이 잇따라 나눔에 동참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한솔축산은 이날 계란 3000판(216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정읍성결교회는 같은 날 라면

100박스(24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정읍라이온스클럽은 이날 현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이학수 시장은 “꾸준한 사회공헌으로 지역 발전에 힘써주시는 라이온스클럽에 감사드립니다”며 “나눔 문화 확산으로 정읍시가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김제 신풍동지사협,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진행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호길)가 16일 중앙경로당에서 대흥마을 75세 이상 어르신 50여 명을 초청해 ‘장수사진 촬영 및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이웃 간 따뜻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당신멋져봉사대’(회장 조현경)의 재능기부가 더해졌다.

어르신들은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받은 뒤 단정한 모습으로 사진 촬영에 나섰고, 오랜만에 꾸민 채 남긴 장수사진은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촬영된 사진은 액자에 담아 추후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익산 동산동 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에 반찬 나눔 봉사

익산시 동산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전매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일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원은 정성스럽게 만든 볼고기 총 60kg을 저소득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6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또 안부를 살피며 이웃 간의 훈훈한 정을 나눴다.

전매자 부녀회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혼자 외롭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흐뭇하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전하는 부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고산농협,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결의대회 개최

완주군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16일 오전 2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농심전심’운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38곳 영농회장, 부녀회장 등 70여명이 함께 했다.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는 식품사막화 증가, 인구감소, 저밀도, 분산거주 등으로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이 약화되어 생필품 구입 등 생활의 불편을 겪는 농촌마을 증가에 따른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대두된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시범사업에 고산농협이 참여, 실질 운영을 앞두고 사업설립회를 실시하게 됐다.

사업설립회는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가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또한,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가 농촌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농심전심’운동에 부합하여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를 계기로 ‘농심전심’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졸음운전 예방법 알아보기

1. 장기간 운전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기

2.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은 운전할 때 삼가하기!

3. 피곤할 때마다 카페인이나 물 마시기!

4. 주기적으로 차 내부를 환기시켜서 산소 주입!



최근 3년간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원인은 바로 졸음운전이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2~3초만 졸아도 100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운전자가 깜박 조는 그 순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一事一言〉



한국을 초토화하려는 미국의 극우 정치

김종대
전 국회의원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 장갑차와 헬기, 쇠사슬까지 동원된 스펙터클은 할리우드 액션영화가 아니라, 트럼프의 '정치 쇼'였다. 그런데 이 황당한 각본의 시나리오 작가는 다름 아닌 조지아주의 극우 정치인 토리 브래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마가(MAGA)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인이 250명 이상 연행되었다는 소식에 환호성을 지르고 승리를 만끽하고 있다.

토리 브래넘(Tori Branum)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만3000명의 해병대 대원들을 훈련시킨 자격 교관 출신이며, 참전 경험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그녀가 출마하려는 조지아 선거구에는 2개의 보훈병원과 1개의 육군 기지가 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선동일지 몰라도, 문제는 거기에 인신매매, 시신 암매장 같은 과담을 덧붙했다는 점이다. 그녀의 페이스북은 팔이 관리한다. 엄마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목격한 딸은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음모론을 제시했다. 딸은 9월 7일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

“민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현대 매가 사이트에서 잠재적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사망했고, 당국에 신고하고 싶지 않아 현장에 매장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현장에 법의학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속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다. 울타리 넘어 달아난 사람? 시체가 묻혀 있다? 이런 식으

로 근거 없는 얘기를 퍼뜨리며 한국을 희생양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분노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현재 토리의 페이스북에는 수천 개의 지지 댓글이 올라와 있다. 페이스북 팔로워도 늘어나고 있고 정치자금 기부도 쏟아진다.

트럼프 지지층의 구호는 늘 같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나 그 위대함의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외국인을 몰아내고, 이민자를 괴물로 만들고, 한국 기업 같은 외국 자본을 악마화하는 것이다. 이들은 글로벌 자본과 불법 이민이 결합하여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ICE의 급습은 그래서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 집행이다. 수개월 전부터 이어진 정치인·유튜버·극우 방송의 제보와 압박이 만들어낸 정치적 연극이었다. 법과 정의는 뒷전이고, 오로지 '트럼프를 위한 분노 동원'이 목적이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만 250명. 그 중에는 단기 비자로 합법 파견된 직원도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미국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다. 미국에 간 목적은 새로운 정비 사용법을 모르는 미국 노동자들을 가르쳐주러 간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피지 않고 ICE는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민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계와 히스패닉 노동자를 모조리 '타자화'하며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간 모습은 미국식 인권의 민낯을 보여줬다. 이런 단속이 아니라 인종주의적 쇼 케이스였다.

미 ICE의 사상 최대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의 표적이 한국이라는 점은 우연일까? 일본은 이미 트럼프가 요구한 5500억 달러짜리 투자 문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소식이 없다. 바로 이 시점에 한국 기업 공장을 표적으로 삼아 '철폐'를 내린 것이다. 트럼프의 계산법은 단순하다. 한국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MAGA 결집하고, 스펙터클한 단속으로 공포 조성하여 관세 협정과 투자 문서 서명을 압박하는 것이다.

일본은 반도체, 의약품, 중요 광물,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 등 미국 전략 분야에 최대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최종 협정에 서명했다. 내용을 뜯어보면 기가 막히다. 투자처는 미국 상무장관 주도 투자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트럼프)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지정 후 45일 내에 투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며 기한 미준수 시 일본에 자동적으로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투자 수익 배분에서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양국이 절반씩, 회수 후에는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가는 구조로 미국에 매우 유리한 방식이다. 이를 조건으로 일본산 자동차, 트럭 등 일부 산업의 미국 수출에 대해 관세가 기존 25~27.5%에서 15%로 인하된다. 이는 일본 투자 이행이 전제 조건이 되며, 투자 불이행 시 즉각 관세가 단계적으로 복원된다.

일본과 같은 굴복을 한국에 요구하는 트럼프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대통령실이 미국의 노골적인 협박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인가. 이재명 정부가 만약 이 협박에 쉽게 무릎을 꿇는다면? 단순한 외교적 굴욕이 아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법 집행'이 아니라 '미국 정치의 희생양 만들기'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시대 이후 미국 내 배타주의와 인종주의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한국을 겨누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언제든 한국을 내칠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굴욕적인 협박 문서에 도장 찍고 미국 극우 정치의 들러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자존과 국익을 지켜내는 길을 갈 것인지를 말이다. 미국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버티기라도 해야 한다. 순순히 도장을 찍는 순간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다가오고 있다.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새만금신공항 흔들리면 전북의 미래도 흔들린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최근 법원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환경단체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오는 29일 전후로 법원의 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원팀'으로 뭉쳐 집행정지 기각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지금까지 새만금공항에는 용역비, 매립면허 양도·양수 비용 등 800억이 이미 집행됐다. 만약 사업이 좌초된다면, 2008년 김제공항 백지화 당시 발생했던 480억 원 매물 비용보다 훨씬 큰 손실이 불가피한데, 이는 새만금 개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전북도는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새만금 방조제 건설 당시처럼 사업 추진이 좌절되는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항소심 대응을 위한 정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국토부와 즉각적인 항소 절차에 돌입할 준비를 하는 한편, 환경·법리적 쟁점까지 면밀히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원고 적격 문제는 이번 소송의 핵심 중 하나다. 1,297명의 원고 중 단 3명만 인정되었고, 이들 역시 새만금 지역이 아닌 군산공항 소음권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전북도와 국토부는 공익적 피해를 적극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이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새만금 전체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어 더 큰 공익 침해가 발생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보완, 조류 충돌 위험 해소 대책 등을 충실히 제시해 항소심에서 공항 건설의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전북도는 국토부, 군산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건의한 상태다. 협의체가 출범하면 1심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밀하게 보완하고,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의 대응 사례까지 참고해 한층 강화된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새만금 개발 전체의 향배와도 맞닿아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항만·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 전략의 핵심축이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RE100 산업벨트 구축,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도 직결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만약 공항 건설이 좌초된다면 새만금의 국제 경쟁력은 치명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2023년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에 준하는 중대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 도민과 정치권, 유관 단체가 함께 '새만금국제공항 지키기'를 위한 대외 홍보와 여론전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만금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동북아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흔들림 없는 대응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이번 위기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문화재열전



정황선생신도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금석각류, 비
-지정일 - 2004년 7월 30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장수군 산서면 보산로 1500-85 (봉서리)

▲오늘의시

이승에 단 램프 / 조병화

나의 목숨은 이승에 단 램프
아직은 어머니가 주신 기쁨이 남아
너를 볼 수가 있다
불빛이 밝은 만큼 뚜렷이

불빛이 강한 만큼 따뜻이
불빛이 퍼진 만큼 넓게
어둠을 헤치며
아직은 어머니가 주신 기쁨이 남아

멀리서나마, 이렇게 까마득히 멀리서나마
그냥 너를 저리도록 그리워할 수가 있다
간단없는 거센 바람 속에
영원처럼.

시인 약력 : 1921년 경기도 안성 출생, 1940년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 고등사범 학교 물리화학과를 졸업했다. 경성사범학교,

서울고 교사에 이어 경희대 문과대 학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문학상, 금관 문

화훈장 등을 받았다. 시집으로 '하루만의 위안', '인간고도', '공존의 이유'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2003년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9월 17일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후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임실조석호, “푸른 꿈 ‘스마트 축산’의 평화로운 여정”

청년농업이 간다

푸르른 산등성이가 겹겹이 포개진 전북 임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자리 잡은 평화목장은, 한 청년의 꿈과 꿈이 맺은 결실이다. 5년 전, 도시의 뻘뻘한 삶을 뒤로하고 이곳에 귀농한 조석호 대표. 그는 젓소들과 함께하는 삶에서 노후의 안식과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소박한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만만치 않은 현실의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름이면 축사는 마치 용광로 같았어요. 뜨거운 열기에 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도 함께 타들어 가는 것 같았죠. 사료 먹기를 거부하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소들을 보며, 제 노력과 땀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만 같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고뇌와 시름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4년간 이어진 혹독한 여름은 그의 가슴에 깊은 주름을 남겼고, 소들의 고통은 곧 그의 시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절망의 순간, 그는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다. 바로 ‘스마트 축산’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길이였다.

희망의 씨앗, 기술로 꽃을 피우다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스마트 축산환경 조절 시범사업’. 조 대표는 ICT 기술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얻었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이제 통신 기기를 활용한 그의 목장을 관리하는 마법 지팡이가 되었다. 지붕 위에서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 공기를 가득 채우는 미세한 안개, 그리고 거대한 날개를 씌 없이 움직이는 대형 환풍기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서 실시간으로 제어되었다.

ICT 기술은 용광로 같던 축사는 이제 싱그러운 바람이 흐르는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다. 젓소들은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사료를 섭취하며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젓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자, 그들의 생산량도 덩달아 늘어났다. 산유량이 2~3% 향상된 것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조 대표의 꿈과 기술이 함께 맺은 값진 결실이었다.

“혹서기와 혹한기 모두 가족을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육체적인 노동에서 벗어나 목장 운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스마트팜은 저의 가족과 소들의 미래를 함께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다.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의 꿈은 더욱 단단해졌다.

도전과 과제, 한국 농업의 미래를 그리다

하지만 조 대표의 이야기는 한국 농업이 직면한 현실과 미래를 함께 보여준다. 그가 귀농하며 마주했던 8억~1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은 여전히 청년 농업인들에게 넘기 힘든 거대한 산이다. 또한,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생물 관리의 어려움과 유업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불안정한 유통 구조는 그들의 꿈을 위협하는 그림자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의 김양식 과장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하드웨어적 지원을 넘어선 소프트웨어적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별 젓소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농가 경영 상황에 맞는 실용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스마트팜의 완성이라는 것이다.

조 대표 또한 낙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제언을 남겼다. 첫째, 개별 유업체가 아닌 ‘낙농진흥회’ 중심으로 통합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우유를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고, 치즈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등 낙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술과 꿈이 만나는 곳, 평화목장의 희망가

평화목장의 이야기는 우리 농업의 미래가 기술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더욱 밝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한다. 그의 꿈과 열정이 ICT 기술이라는 든든한 날개를 달고, 한국 농업의 새로운 발걸음을 써 내려가고 있다. 평화로운 풍경 속, 젓소들과 함께 행복을 일구는 조석호 대표의 모습에서 우리는 청년 농업의 밝은 미래를 본다.

/이상훈 기자

<사진=전북농기원 제공>